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하는 강한 노동조합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회보

• 발행일: 2020년 4월 29일(수)
• 발행인: 이철환
• 편집 및 제작: 홍보부
• Tel: 053-850-5760~1
• Fax: 053-850-5764
• https://union.daegu.ac.kr

제17-9호 / 2020년 5월호
노조창립일: 1988년 2월 13일

[특집] 노동절 경과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4.19혁명 60주년, 5.18항쟁 40주년이며, 5월 1일은 130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134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16시간 노동에 월 10달러 저임금에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1886년 5월 1일 파업 집회를 열어 하루 8시간 노동 확립을 요구하였다. 5월 3일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경찰의 발포로 숨졌고, 5월 4일 7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이던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국제노동자협회(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통해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결정하고 이듬해 1890년 5월 1일 첫 노동절(May Day)대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개최, 약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일제의 탄압에도 매년 개최하였다. 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1957년 이승만 정권은 5월 1일 노동절을 없애고 3월 10일로 날짜마저 변경해 정권의 노동정책 홍보일로 삼았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은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없애고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7년~1989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절 회복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였고 1994년 김영삼 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념일을 현재의 5월 1일로 변경하였지만 '노동절'의 명칭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소식

코로나-19 극복 조합원 사기 진작 위문 행사…'힘내라 동지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인해 심신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위로하기 위해 지난 14일 진행된 '힘내라 동지여!' 행사가 원활하게 종료됐다. 소량의 소독제와 건강식품, 격려 메시지를 노동조합 집행부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조합원들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제17대 노동조합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조합원들에게 가능한 책무를 다하고자 집행부 결의를 통해 본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했다.

대부분의 대학 노동조합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당국과의 접촉을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본 노조는 5월 중 조합원 설문조사 및 방문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반기에라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교섭 및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_2020. 5. 1. 현재

조합원(A)	휴직조합원(B)	비고(A-B)
194명	4	190

전월 활동 동향

일정	내용	비고
4. 1.	주간회의	집행부
4. 3.	노조회보 2020년 4월호 발간	포털 게시
4. 8.	주간회의	집행부
4. 13.	대학 기획위원회	기획부장
4. 14.	주간회의 및 조합원 위로방문 행사	집행부
4. 16.	한국노총 경산지부 대의원대회: 모바일	위원장
4. 22.	주간회의	집행부
4. 28.	직원 인사위원회(서면): 휴복직, 전보 등	위원장 등
4. 29.	주간회의	집행부
4. 29.	학원 창립 74주년, 개교 64주년 기념식	위원장
5. 1.	★ 130주년 세계노동절 ★	

5월 조합원 祝생일자_양력 기준/무순

김중호	피정훈	이종준	김명호	김현진
윤성훈	이근태	신성진	정병만	황수공
이수찬	손영숙	김상수	김봉심	정형대
이현주	김성수	석기정	김용식	

5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4. 30.	노조회보 발간: 2020-5월호	홍보부
예정	조합원 설문조사(2차): 단체교섭 준비	조사통계부

오피니언

노동자와 정치

21대 총선이 끝났다. 보수 집권여당이 압승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의석 기준 60%를 차지했으니 그럴 만한 평가다. 반대로 제1야당은 참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해방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친일친미 반공을 내세웠고 스스로 '보수'를 자임하며 군사쿠테타 세력과 관권 경제 기득권 세력까지 결합하여 보수를 참칭해왔다. 이에 주류 상업언론 등과 제휴하여 보수의 핵심세력으로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도 굳건하게 득세해 왔으니, 참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 '가짜 보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입법, 행정, 사법 행위를 해왔고, 국가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활동을 일삼았으니 매우 늦은 패배를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통상적으로 계급·계층을 대변하거나 세대별로 공유하는 현실적 미래적 지향, 환경 · 인종 · 젠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투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가짜 보수'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만든 배타적 지역개발 경쟁이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켰고 감정적 · 정서적으로 재생산, 지역주의 이데올로기로 변질·고착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계층별 세대별 투표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어 다행스럽다. 노동 현실은 노동자의 정치참여로 해결하고, 공동체의 미래는 마땅히 미래세대의 지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계 출신 15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노동존중 협약을 맺은 여·야당의 51명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상당수가 집권여당에 소속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여전히 불만족스런 결과이지만 당선자들은 노동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전념하면서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정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경제적 주체로서 지위에 만족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부정하거나 노동을 배신하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서 노동친화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과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주체로서 활동을 등한시할 경우, 임금 · 복리 · 노동조건 등에 대한 경제적 지위마저 훼손 · 상실된 것은 이미 역사적 교훈에서 확인됐다. 노동 친화적 제도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노동자의 삶, 즉 전체 사회가 안전하다. 노동자의 정치는 시대의 보편적 흐름이다. <위원장>

게시판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분이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직제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동반해 드립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 부위원장, 여성부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정보, 오피니언 제언, 노조 및 학교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각종 의견을 주시면 매월 제작되는 본 회보에 반영됩니다. 직거래 장터 및 각종 물품 나눔 마당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관련 정보를 홍보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부장: 053_850_5534